남녀가 평등한 고양시!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다

고양시는 2014년에 1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이후 지난 5년간의 추진성과 및 향후 5년간 사업계획 등의 종합평가를 통해 2019년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특히 11개 지자체에서 재지정에 도전하였으나 고양시를 포함한 4개 지자체만이 선정돼 의미가 더 크다.

글 지선욱(여성가족과) **사진**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 및 협약식

촘촘한 지역 특성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플랫폼 구축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여성가족부가 5년마다 선정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전국 92개 지자체가 지정돼 운영 중이며 경기도에서는 13개 시가 지정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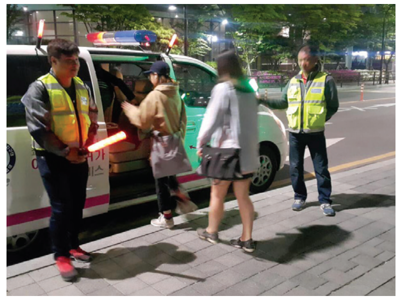
고양시는 2014년 지정된 1단계 기간 동안 여성친화서포터즈 및 고양여성네트워크를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전국 최초 일산서구 신청사 내 여성커뮤니티센터 조성, 직장맘n대디 행복공동체사업,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공모사업, 대중교통 임산부 안전벨트 배려석 운영, 여성안심무인택배함 및 여성안심귀가동행서비스, 여성창업플랫폼 구축, 여성친화 플래너 아카데미, 고양 여성영화제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재지정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친화형사업 추진으로 시민행복 기여

일산서구청사 내의 여성커뮤니티센터는 청사 2층 전체를 시민을 위한 개방공간으로 조성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자발적인 소모임·동아리 등의 활동 공간, 여성들의 쉼과 힐링 공간, 세미나실 및 아빠육아상담방 등 모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공간 대관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에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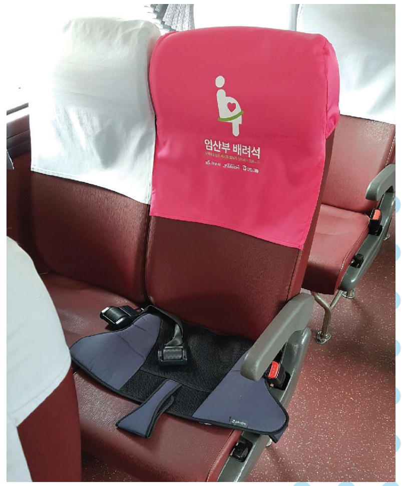
아이와 함께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 가는 직장맘n대디 행복공동체사업은 2017년에 최초 시작한 사업으로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자 직장인 부모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체험활동, 음악, 미술, 신체놀이 등을 통해 부모에게는 자녀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들에게는 정서적 안정감과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 사회적으로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하는 육아문화 및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 밖에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공모사업과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여성안심귀가동행서비스, 대중교통 임산부 안전벨트 배려석,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 안전사업 및 아이러브맘카페, 다둥이 행복꾸러미, 아빠놀이터 등 가족친화 조성사업, 지역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친화 플래너 아카데미, 고양여성영화제, 여성창업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여성안심귀가동행서비스

여성안심무인택배함



대중교통 임산부 안전벨트 배려석

직장맘n대디 행복 공동체사업

고양시는 여성친화도시 2단계 조성을 위해 기존 사업의 보완·확대와 더불어 제도 중심에서 여성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자로서의 사람 중심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체활동 지원공간으로서의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시민이 주도하는 운영체계로 구축해 나가고, 다양한 성평등 등 문화 행사를 추진해 지역사회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여성친화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이 도시 안에 안전하게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손작업 공작소, 성평등한 스포츠도시 조성을 위한 여학생 스포츠의 날 추진 및 스포츠계 폭력 예방과 근절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